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엄친아 탈피, 사내냄새가 난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상윤

학업 소홀로 서울대 제적됐다 재입학

"연기 반대한 아버지가 제 1호 팬 됐죠"

"'엄친아' 이미지를 너무 깨고 싶었어요. 호섭이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역할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고 싶었습니다."

탤런트 이상윤(29)은 진심으로 현재의 역할을 즐기는 듯했다. SBS TV 주말극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막내아들 호섭 역을 맡고 있는 그를 최근 만났다.

"촬영장에 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변신이 행복하다"며 활짝 웃은 그는 화면에서보다 더 훤칠하고 매끈한 모습이었다. 키가 185㎝란다.

호섭이는 중산층 가정의 막내 아들로 대학을 중퇴하고 스킨스쿠버 강사로 활동하는 인물. 화목한 가정에서 바르게 자라난 '착한 아들' 이지만 단순한 면이 있어 툭하면 여동생으로부터 '바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섭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을 주로 연기해왔다. 부잣집의 똑똑하고 잘 생긴 아들이자, 스마트한 변호사 혹은 엘리트 대학원생 역할이 그의 전공이었다.

그런 그의 이미지를 바꿔준 사람은 '인생은 아름다워'의 김수현 작가. 2008년 SBS '신의 저울'을 호평했던 김 작가는 그 작품에서 송창의와 투톱을 이뤘던 이상윤을 눈여겨보면서 그에게서 지금의 호섭이 이미지를 끌어냈다.

"이순재 선생님이 당시 '김 작가가 자네를 되게 좋게 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한테는 김 작가님이 '저 친구에게는 사내 냄새가 난다'고 하셨다는 말도 전해들었어요."

김 작가는 샤프한 수트 차림이었던 그를 몸으로 부딪히는 스킨스쿠버로 변신시켰고, 어깨와 눈에 들어갔던 힘을 완전히 빼고 대신 따스함을 불어넣어줬다.

"호섭이는 때가 덜 묻은 순수한 남자예요. 꼬인 부분도 없고요. '바보'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그게 지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해서 그런 거여요. 요즘은 연주와의 결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바보 소리를 듣는데, 호섭이는 연애하니까 그저 행복할 뿐이에요.(웃음)"

그가 이처럼 이미지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은 서울대 물리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한몫했다. 데뷔 때부터 '남자 김태희'로 불렸던 그를 드라마 관계자들은 극 중에서도 '엄친아'로 만들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점이 백그라운드로 작용했고 거기서 풍긴 이미지 때문에 비슷한 역할들이 잇달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김수현 작가님께 너무 감사하죠."

연기를 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해 지난해 학사경고 누적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됐던 그는 올해 재입학 신청으로 구제돼 다시 학생이 됐다.

"제적 소식에 많은 분께 혼났어요. 학교는 꼭 졸업해야죠. 지금 10학기까지 다닌 상태인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학업에 집중해 졸업하려고요."

이상윤은 공익근무 막바지였던 2004년 말 소위 '길거리 캐스팅'으로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다.

"그전까지는 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친구에게 물었는데 양쪽 모두 놀랍게도 적극 추천을 하는 거에요. 부모님은 제가 내성적이라 그런 일을 하면 성격이 좀 밝아질 것으로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순전히 아르바이트로서죠. 그러다 진짜 연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땐 반대하셨어요.(웃음) 지금은 아버지가 저의 1호 팬이세요."

공익근무를 마치고 2005년 초부터 광고모델로 활동한 그는 8편 정도에 출연하면서 연기교육을 받았고 2007년 KBS '드라마시티'로 연기에 데뷔했다. 이후 '미우나고우나', '신의 저울' 등에 출연했다. 그는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 변신의 즐거움과 함께 대가족 체험의 기쁨도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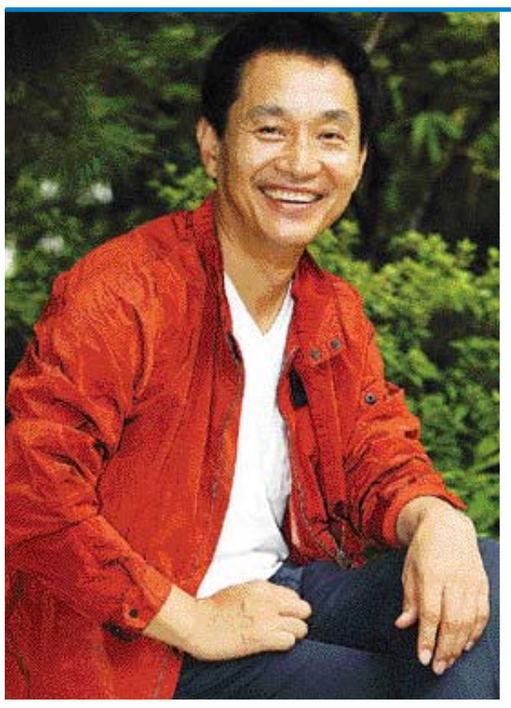
그는 "연기가 너무 좋다. 연기를 하면서 부끄러움도 항상 느끼지만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100번 부끄럽다가도 집중해서 어느 한 순간 부끄러움을 잊은 연기를 하면 짜릿함을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역전의 여왕' 김남주 여주인공에

'내조의 여왕'의 김남주가 속편 격인 '역전의 여왕'(제작 유니온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됐다.

17일 홍보사 3HW에 따르면 '역전의 여왕' 여주인공 역에 김남주가 캐스팅돼 '내조의 여왕'을 썼던 박지은 작가, '잘했군 잘했어'의 김남원 PD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역전의 여왕'은 '내조의 여왕'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던 여자가 결혼 후 예상치 못한 풍랑을 겪고 이를 이겨내면서 인생역전의 순간을 누리게 된다는 게 기둥 줄거리다.



"또 악역…나의 숙명인가 보죠"

"내용도 모르고 출연 결정했는데 아주 잘한 선택"

'제빵왕 김탁구' 정성모

"옛날엔 악역을 하면 사람들이 절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가와요. 그러고는 이러죠. '탁구한테 좀 잘해주세요'라고..(웃음)"

탤런트 정성모(54)가 KBS 2TV '제빵왕 김탁구'의 한승재 실장 역으로 2010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아이들도 '아저씨 멋있어요' '짱이에요'라며 좋아하는 것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껴요. 1995년 '모래시계' 때 이종도 역을 했을 때는 옆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를 가든 사진 찍자고, 사인해달라고 하네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남녀노소가 골고루 다 우리 드라마를 재미있게 봐주시는구나 느끼죠."

1982년 MBC 공채 탤런트 15기로 데뷔해 올해 연기생활 28년을 맞은 정성모는 그런 한승재에게 활활 타오르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정성모와 이 드라마의 인연이 재미있다.

"우스운 얘기지만 무슨 역할인지도 모르고 이 드라마에 출연했어요. 잘 알던 제작진으로부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제목도 모른 채 '그래 하자'고 대답을 해 버린 거에요. 제가 보통은 대본을 보내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따라 그냥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없기에 엎어졌나보다 했더니, 두 번째로 전화받은 게 대본 연습하러 나오라는 거였어요. 1회 대본 연습 현장에 나가서야 드라마 제목과 내용, 배역을 알게 됐어요. '제목이 뭐 이래?' 하며 연습을 시작했고, 끝나고 나서 '내가 악역이냐'고 물었다니까요. (웃음)"

그는 "그런데 그날 연습을 하면서 대본이 치밀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겠더라. 내용도 모르고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선택을 잘한 셈이 됐다"며 웃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전인화 씨랑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연기가 참 맛있지 않냐?'고 했어요. 우리끼리도 호흡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한승재는 늘 서인숙에게 져야 하는 역할인데도 제가 전인화 씨랑 대립하는 신을 찍다가 어느 순간 긴장감이 팍 느껴지면서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꽃이 튑니다."

한때 제주도로 내려가 전원생활을 하는 등 활동이 뜸했던 정성모는 2008년 KBS 2TV 사극 '바람의 나라'와 2009년 MBC TV '선덕여왕'에 잇달아 출연하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시대가 안 좋은 것 같다. 요즘 인터넷에서 내 나이를 보고는 '왜 그렇게 나이가 많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은 청춘인데…"라며 웃었다. /연합뉴스